

北 “이산상봉·금강산관광 회담 모두 보류”

실무회담 제의 하룻만에 입장 반복

정부 금강산관광 회담 거부에 불만

북한이 금강산 관광재개 실무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모두 보류한다는 입장을 11일 우리 측에 통보했다.

북한이 전날 금강산 관광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을 전격

제외한 뒤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우리측에 보낸 전통문을 통해 “두 개 회담 모두를 보류한다”고 밝힌바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가 전했다.

북측은 보류 이유로 “남측이 제기한 대로 우리도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전날 북한의 2개 회담 제의에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은 거부하는 대신 이산가족 상봉회담 제의는 수용하며 회담 장소만 판문점으로 바꾸자고 수정제의했다.

북한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꾼 것은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을 거부하고, 이산가족 상봉회담 장소도 일방적으로 수정해 제

의한 데 대한 ‘불만’을 ‘보류’로 통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측은 순수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은 오는 17일 금강산에서, 추석 재개 회담을 거부하고, 이산가족 상봉회담은 19일 금강산 또는 개성에서

각각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19일 적십자 실무접촉은 수용하되 장소는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하자고 북측에 수정제의했다.

또 금강산 관광재개 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회담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회담 개최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

기장 “착륙 직전 섬광에 안보여”

美 조사기관 “기기고장이라도 최종 책임은 조종사”

아시아나機 충돌 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조종한 이강국 기장은 충돌 34초전에 강한 불빛에 잠시 눈이 안보이는 상태였다고 미국 조사당국에 밝혔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데버러 허스먼 위원장은 10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사고 조사 내용 브리핑에서 이 기장에게서 이런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기장은 착륙 직전 500피트 상공에 도달했을 때 지상에서 비추는 강한 불빛 때문에 잠시 눈이 안보이는 상황이었다고 NTSB 조사관에게 말했다.

레이저포인트 불빛이냐는 질문에 허스먼 위원장은 “분명하지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조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불빛이 비쳤다는 500피트는 너무 낮은 고도와 느린 속도라는 사실을 조종사들이 인지한 시점의 사고 고도이다.

사고기는 34초 뒤에 활주로와 충돌했다.

NTSB 조사관들은 착륙에 앞서 자동으로 속도를 유지해주는 ‘오토스토폴’을 작동시켰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에서 ‘오토스토폴’이 켜져 있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기기고장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오토스토폴’은 컨디가 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컨 상태에서 원하는 속도를 설정한 뒤 시작 버튼(A/T)을 눌러줘야 작동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NTSB는 켜져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실제 작동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기장이 설정 변경 작업에 이어 시작 버튼을 눌렀는지, 아니면 제재

로 설정하고 시작 버튼을 눌렀는데도 작동하지 않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허스먼 위원장은 “실사 자동 속도 장치가 고장났다고 해도 조종사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오토스토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조종사의 책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강국 기장과 이점민 교관 기장은 이륙 때 조종간을 잡았고 태평양을 건널 때 교대 기장과 부기장에 조종석을 맡기고 휴식을 취하다 착륙 90분 전에 다시 조종석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뒤에 앉아서 착륙 과정을 지켜봤던 교대 기장은 기체 꼬리 부분이 너무 낮아 기수가 들려진 탓에 활주로를 육안으로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해 착륙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NTSB는 사고 당시 승객 탈출이 지체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꼬리 부분이 잘려나간 동체가 활주로를 벗어나 360도 회전한 뒤 멈춰서 고도 기장은 관제탑과 교신하느라 승객들을 자리에 그대로 앉혀놓으라고 승무원에 지시했다.

항공기 비상사태 때 90초 이내에 승객 전원을 탈출시켜야 하지만 기장은 승무원들에게 즉각 승객을 탈출시키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 90초가 지난 뒤 2번 탑승구에 있던 승무원이 동체 외부 중간쯤에 치솟는 불길에 창문을 통해 목격하고 이를 조종실에 보고한 뒤에야 탈출이 시작됐다. 그때서야 비상구가 개방되고 탈출을 미그럽들이 펼쳐졌다.

허스먼 위원장은 “승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시설 점검을 마친 뒤 입경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진전만 금강산 문제 풀릴수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 시사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1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북측과 원만히 협의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풀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류 장관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북한정책포럼 조찬 강연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놓고 당국 간 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먼저 진전이 있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쩌면 금강산도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북측에) 답을 보냈다”고 밝혔다.

제도도 있었고 (우리측이) 장소는 수정했지만 제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당면한 개성공단 문제부터 차분히 풀어가 남북관계의 신뢰를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류 장관은 “우리 정부는 회담이든 대화든 신뢰를 쌓는데 집중하겠다”며 “회담 국면 하나하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노심조사하기보다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남북관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가 생각하면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초보적인 차원의 신뢰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쌓자는 것”이라고 신뢰회복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

정부 FTA지원금 부당 지급

감사원, 피해현황 예측 잘못 등 20건 문제점 개선 요구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이나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 FTA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정부가 농수산업·중소기업 등의 FTA 피해 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해 추진 중인 국내지원대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지원금 부당 지급을 포함한 20건의 문제점을 확인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FTA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에게 가격하락분의 90%를 피해보전지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작황이나 국내 생산량 증가, 소비자 감소, 선호 변화 등 FTA 외의 요인으로 가격이 떨어져도 직불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이 FTA이행지원센터에 의뢰해 한우 품목의 피해보전지불금과 요인별 가격하락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현재 한우 농가에 대한 예상 직불금은 총 159억원이지만 이중 FTA에 따른 가격 하락분은 48억원(30%)에 불과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어업인이 5년 안에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 또는 사육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현재 지원금 회수 사례는 단 1건에 그

쳤다.

폐업지원금 지원도 허술했다. 감사원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979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 15%에 해당하는 1482개 농가가 5년 이내에 같은 품목을 다시 재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FTA 국내 지원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FTA 영향분석이 엉망으로 이뤄져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발표 후 15년 동안의 국내 농산물 생산 감소액을 분석하면서 병충해 문제로 당분간 국내 수입이 불가능한 사과(9260억원), 배(652억원), 복숭아(2671억원)를 당장 수입되는 것으로 가장해 계산했다. /연합뉴스

중 여고생 1명 구급차에 치여 사망 확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진 중국 여고생 2명 가운데 구급차량에 치인 사람이 예명위안(葉夢圓)으로 확인됐다고 샌프란시스코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밝혔다.

11일 인민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국 조사 당국은 예명위안이 구급차량에 치인 사실을 확인해 중국 측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는 숨진 여고생 2명의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구조차량에 깔린 사람이 예명위안인지, 다른 사망자인 왕린자(王琳佳)인지가 불명확했다.

그렇지만 구급차량에 치인 것이 예명위안의 직접적 사인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연합뉴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평 → 어등산골포장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 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5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건 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4억**

부실채권매각은 매수회망자 현황사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한우전문점 점장 모집

남평을 “술향기맑은터” 한우전문점에서 근무하실 용모단정하신 점장을 모집합니다.

호텔경력자 또는 관리경력자 45세미만 남녀 연봉 3,000만원이상, 4대보험, 퇴직금, 월4회 휴무 이력서(사진), 자기소개서, 지참 면접 문의 010-7570-7525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5억
- ▶두암동 5층 상가 건물 8.5억
- ▶지산동 5층 사무실 건물 16.5억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20천 원3백만

대지/전답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 임시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항동 창고용지(생산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봉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 10억 월 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포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외부동산개발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인인가)
상가 주택임차에서 영도, 동기, 양도신까지(무료상담)

상가 주택

-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업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 ▶광산구 윤남동 2층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75억 최저가35억5천만
-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76억9천만 최저가44억8천만

단독주택

- ▶서구 화정동 2층주거2층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 ▶광산구 송정동 2층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공장 및 창고

- ▶광산구 지족동 준공업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 사무실 토지3279㎡ 건물1560㎡ 감정가4억7천만 최저가3억2천만

토지 매매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당후 가격조정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득량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과 선착장 그리고, 최고의 위치 시설이 어울린 절경의 별장지 **토지**

4,900㎡(1,485평) 건물 245㎡(75평)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건물(100%)에 수입 창호등 최고급재 및 내부 공기 자동배출방식의 숨쉬는 집.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매매가 : 협의

최고의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도심속의 전원주택지 **전 3,700㎡(1,120평) 매가 3억9천만원**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개간완료된 일야
곡성군 옥곡면 죽림리 관지역 동광주 IC에서 15분거리 도로점입)25,700㎡ 매가1억9천, 개간완료 및 토질 좋음(과수원, 양초, 귀농 등 적합)

저렴한 전시판매장
주월동 상가 분양구 입주 대로변 코너 대지 512㎡ 건물500㎡ 매매가7억9천(가구, 전자, 자동차, 아웃도어 등)전시판매장 최적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 대창공인)
011-642-7777